
화법과 작문

문항별 상세 해설 · 1번 ~ 11번

문항	1	2	3	4	5	6	7	8	9	10	11
정답	③	⑤	①	③	⑤	③	④	④	②	①	③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학생 발표에서 활용된 전개 방식과 말하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 발표의 도입·전개·마무리 각 부분에서 발표자가 사용한 전략을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.

①

발표자는 도입부에서 청중의 경험을 언급한 뒤 현재의 기상 정보 비교가 과거에도 이루어졌다는 **공통점**을 환기한 것이지, 과거와 현재의 "차이점을 부각"한 것이 아니다.

②

발표자는 발명의 결과만 언급하고 있을 뿐, 고안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소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.

③ ✓ 정답

발표자는 마무리 부분에서 전개 부분에서 다룬 측우기의 규격과 측정 방식, 설치 체계와 보고 방식, 조세 제도에의 활용 등 세부 내용들을 종합하여 측우기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.

④

발표자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, 시각 자료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. 청중에게 던진 질문은 시각 자료가 아닌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이다.

⑤

발표자는 청중의 답변을 들은 뒤 새로운 내용(연분구등법)을 도입한 것이지, 앞서 설명한 내용을 "보충"한 것이 아니다.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발표자가 사전에 세운 발표 계획이 실제 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 각 계획 항목(㉠~㉣)과 발표 내용을 대조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.

①

㉠은 "현재의 기상 정보와 관련지어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"는 계획이다.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현재의 기상 정보를 언급한 뒤 발표 주제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㉠이 반영되었다.

②

㉡는 "이전 방식의 한계를 제시하여 새로운 기구 도입의 배경을 설명한다"는 계획이다. 발표자는 이전 방식의 한계를 밝히고 있으므로 ㉡가 반영되었다.

③

㉢는 "중앙과 지방의 관측 주체와 역할을 밝혀 체계의 조직적 측면을 부각한다"는 계획이다. 발표자는 중앙과 지방의 관측 주체와 역할을 각각 밝히고 있으므로 ㉢가 반영되었다.

④

㉣는 "수집된 강우량 기록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들어 관측 체계의 실용성을 설명한다"는 계획이다. 발표자는 연분구등 법이라는 조세 제도를 소개하며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㉣가 반영되었다.

⑤ ✓ 정답

㉤는 "측정 방식을 보완하여 제도를 재정비한 과정을 제시한다"는 계획이다. 그러나 발표에서는 영조 때 "세종 당시와 **동일한 규격으로**" 다시 제작하였다고 하였을 뿐, 측정 방식이 "보완"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.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 발표 내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 각 학생의 반응이 발표 내용을 어떻게 수용·추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.

① ✓ 정답

학생 1은 "토양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진다"는 발표 내용(이전 방식의 문제)에서 출발하여, "작황 비교"라는 연분구등법의 전제 조건과 연결하여 추론하고 있다. 이전 방식의 문제를 발표에서 소개한 제도와 연결하여 추론한 것이다.

②

학생 2는 발표 내용에서 수령의 직접 측정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추측한 것이지, "자신이 알고 있는 행정 원리에 비추어 평가"한 것이 아니다.

③

학생 3은 "규격을 더 정밀하게 개선"이라고 말하고 있으나, 발표에서는 "세종 당시와 동일한 규격으로" 다시 제작했다고 설명하였다. 복원 과정을 "정확하게 이해"했다고 볼 수 없다.

④

학생 1과 학생 2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을 뿐, 사전 지식과 비교하거나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반응이 아니다.

⑤

학생 2는 원인을 추론하고 있으나,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잘못 이해한 전제에서 출발한 추론이므로 "모두"가 원인을 추론했다고 볼 수 없다.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(가)의 대화에서 ㉠~㉤으로 표시된 각 발화의 의사소통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 각 발화가 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.

①

㉠에서 지원은 친구들의 의견을 묻고 있으며, 이는 '활동 1'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.

②

㉡에서 하은은 서준의 의견에 동의한 뒤, 강홍립 파견과 밀지라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관심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③ ✓ 정답

㉢에서 지원은 의리론을 "반박 근거"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제안하여 다각적 논의를 유도한 것이다. 또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라는 동일한 화제 안에서 관점을 다양화한 것이지 "화제를 전환"한 것이 아니다.

④

㉣에서 서준은 외교만이 아니라 내정도 함께 볼 것을 제안하며 인물 평가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⑤

㉤에서 하은은 광해군을 탐구 인물로 확정할 것을 제안하며 탐구의 초점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대화에서 준언어적·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식별하고, 이를 대화의 원리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 【A】와 【B】에 나타난 표현의 유형과 그 기능을 정확히 판단하도록 한다.

①

【A】에서 "작은 목소리로"는 준언어적 표현(㉠)이 맞다. 그러나 지원은 자신의 사정을 먼저 밝혀 부담을 줄이는 ㉡에 해당하며, ㉢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

②

【A】에서 "작은 목소리로"는 준언어적 표현(㉠)이다. 비언어적 표현(㉢)이 아니므로 표현 전략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.

③

【B】에서 "손사래를 치며"는 비언어적 표현(㉢)이다. 준언어적 표현(㉠)이 아니므로 표현 전략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.

④

【B】에서 "손사래를 치며"는 비언어적 표현(㉢)이 맞다. 그러나 서준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㉣에 해당하며, 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

⑤ ✓ 정답

【B】에서 "손사래를 치며"는 비언어적 표현(㉢)에 해당한다. 서준은 지원의 칭찬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으므로 ㉣에 해당한다.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(가)의 대화 내용이 (나)의 초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고, 상호 평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 (가)와 (나)를 대조하여 각 평가 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한다.

①

(가)에서 세자 시절의 분조 활동은 언급되지 않았으나, (나)의 첫 번째 문단에서 추가하여 인물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②

(가)에서 하은(㉠)이 강홍립 파견과 밀지 사례를 언급하였고, (나)의 두 번째 문단에서 이를 핵심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③ ✓ 정답

(나)의 세 번째 문단에서 비판적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"명나라 원군의 은혜에 대한 의리 의식"이지, "내정의 문제"가 아니다. 내정의 문제는 **네 번째 문단**에서 양보 구문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.

④

(가)에서 "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"는 언급은 없었으나, (나)의 네 번째 문단에서 추가하여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⑤

(나)의 네 번째 문단은 "그럼에도 불구하고"로 시작하여 역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곳에 역접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. 담화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수정 의견은 적절하다.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〈보기〉에 제시된 역사 에세이의 글쓰기 원리를 바탕으로, (나)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

①

(나)의 두 번째 문단에서 강홍립 파견과 밀지라는 구체적 행위를 근거로 중립 외교가 현실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②

(나)의 세 번째 문단에서 명의 원군에 대한 당시의 의리 의식을 반대 관점으로 제시하여 평가의 균형을 높이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③

(나)의 세 번째 문단에서 인조반정 이후 호란의 사실을 들어 반대 관점(의리론)의 한계를 지적하고 필자의 관점을 강화하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④ ✓ 정답

내정의 문제는 "비록 ~이지만"이라는 **양보 구문** 안에서 인물의 한계를 인정하되 외교 판단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지, "중립 외교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반대 관점의 근거"로 활용된 것이 아니다.

⑤

(나)의 네 번째 문단에서 다각적 시각을 드러내며 긍정적 평가로 일관되게 마무리하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초고에서 ㉠~㉤으로 표시된 문장이 글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글쓰기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

①

㉠은 일반적 인식을 제시한 뒤 연구 결과로 이를 반박하여, 글에서 다룬 화제가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주제임을 부각하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②

㉡에서 "지휘한다"는 시교차상행의 조절 기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, 독자가 해당 기관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③

㉢은 아침형과 저녁형이라는 동일 범주의 두 유형을 대비하여 각 유형의 생리적 특성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④ ✓ 정답

㉤은 동시성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신경생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. 선지의 전반부("연구 결과의 원인을 신경생리학적 측면에서 설명")는 정확하나, 후반부의 "동시성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밝히고 있다"는 ㉤이 아니라 **그 다음 문장**의 기능이다.

⑤

㉥은 선행 연구에 기대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의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여, 사회적 시차라는 현상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작성자의 메모(㉠~㉣)를 고려하여 초고의 각 문단이 메모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

①

첫 번째 문단은 수면 부족 현상을 언급하고 생체시계의 개인차를 화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, "수면 습관 개선을 촉구"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.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.

② ✓ 정답

두 번째 문단은 크로노타입을 정의하고 호르몬의 역할을 설명하여 ㉡를 반영하면서, 청소년기의 성향 변화까지 추가로 다루어 ㉡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.

③

세 번째 문단은 동시성 효과가 "결정적 지능 과제에서 뚜렷한 반면 유동적 지능 과제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"고 서술하고 있어, "모든 종류의 인지 과제에서 동일하게 관찰됨"과 일치하지 않는다.

④

네 번째 문단은 저녁형에게 불리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을 뿐, 아침형 학생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.

⑤

다섯 번째 문단은 크로노타입이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특성이라고 서술하고 있을 뿐, "등교 시간을 크로노타입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제도적 방안"을 제안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.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동료의 조언이 제시한 조건(본론 핵심 내용 요약 + 독자의 실천 방안 제시)을 충족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

① ✓ 정답

전반부에서 동시성 효과와 사회적 시차를 요약하고, 후반부에서 독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학습 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. 본론 핵심 내용 요약과 독자 실천 방안 제시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.

②

본론 내용을 부분적으로 요약하고 있으나, 학교의 제도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지 독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.

③

초고에서는 주말 보충 수면에 대해 **부정적**으로 서술하고 있는데, 이 선지는 "주말의 보충 수면으로 해소할 수 있다"라고 하여 초고의 내용과 방향이 반대이다.

④

초고에서는 동시성 효과가 아침형과 저녁형 **모두**에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나, "아침형에게만 해당"이라는 기술은 초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.

⑤

초고에서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동일하다고 한 적은 없다. 초고에 없는 전제를 삽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평가 목표 이 문항은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, 이를 초고의 적절한 위치에 활용하는 방안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.

①

[자료 ㄱ]의 작업기억 과제 정확도 수치(평균 15%)는 세 번째 문단의 동시성 효과의 구체적 수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②

[자료 ㄱ]의 대뇌피질 장기 강화 반응 결과는 세 번째 문단의 신경생리학적 기반을 보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③ ✓ 정답

[자료 ㄴ]은 성적 차이가 "과목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관찰되었다"고 명시하는데, 이를 "과목별 성적 차이"로 활용하겠다고 하여 자료의 내용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. 또한 [자료 ㄴ]은 사회적 시차의 영향(네 번째 문단)에 해당하는 자료이지, 동시성 효과의 지능 유형별 차이(세 번째 문단)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다.

④

[자료 ㄴ]의 저녁형 학생 성적·결석률 데이터는 네 번째 문단의 사회적 시차의 부정적 영향을 구체화하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

⑤

[자료 ㄷ]에서 전문가의 견해는 다섯 번째 문단의 마무리를 보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 따라서 적절하다.